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 ⑦ 나의 근본이 부처님이라고요?

**나의 근본은 부처님**

"만일 다른 종교인 보고 '당신이 원래 신(神)이다'라고 해 보세요. 그리고 '신이 될 수 있다'라고요. 어떻게 생각하겠나.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이었어."

K씨는 처음 "나의 근본은 부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그 전에는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뭔가 인간보다 뛰어난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불교인 줄 알았었다. 부처님이란 나와는 직접 상관 없는 높은 존재로 생각했다. 정식으로 불교 교리와 참선을 배우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알았다. 가장 놀란 것이 모든 존재의 근본은 불성이라는 일심(一心), 한마음이며, 누구나 그 자성(自性)을 회복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고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에 불과한 나의 근본이 부처님이나 위대한 큰스님들과 똑같은 건 믿을 수가 없었다.

파도와 바다의 비유로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부처님 마음이 바다라면 우리 각자는 거기에서 비롯된 파도 하나와 같다는 것이다. 자신이 바다의 일부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분리된 파도라고만 알아 자기 자신에 집착한 채 살고 있다. 바다로서 전체를 보고 판단하지 못하고 사니 온갖 경계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대처할 수

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파도란 본래 바다에서 나온 것이니 개별적인 나라는 마음을 쉬기만 하면 저절로 바다의 마음이 된다. 파도가 곧 바다인 것처럼, 중생이 바로 부처라는 것이었다.

**부처님 되십시오**

논리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도 K씨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사는 데 쫓기어 마음이라는 가도 도는 것에 신경 써 보지 못했다. 결혼하고 아이들 교육에 여념이 없었고 직장도 얼마 있

### 파도가 바다서 생기듯 내 뿌리는 불심

집착하는 마음 다스리고 '부처님의 마음' 찾아야

### 큰 나무도 새싹이 자란 것... 발심 새롭게

으면 그만 두어야 할 나이다. 노후 대책이 걱정인데, 이런 내가 정말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원래 내 속에 부처님 마음이 항상 있었다고? 나 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닐까. 그냥 불교공부 좀 해서 늙어서 마음 의지할 곳을 찾아 보려고 한 것인데, 너무 엄청난 주문이었다. 신심이란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분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자성을 믿는 것이다? 바로 내가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 지장보살 같은 마음

이 될 수 있다고, 아니 원래 그 마음이 항상 있어 왔나.

"지금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등 번뇌로 덮여 있는 그대로가 부처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이가 아직 어른이 안 된 것처럼 부단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나라는 집착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다스리고 노력해서 부처님 마음을 찾아야 되고 부처님 같은 행을 하셔야 됩니다."

K씨는 몇 달 기초과정에 다니며 참선을 조금씩 배웠다. 다른 사람들을 보며 자극이 되었다. 자신과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열심이었다. 전국에서도 많은 불자들이 바로 그 부처님 마음을 찾으려고 정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 K씨는 서서히 마음이 열려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가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성불하십시오"하고 인사를 주고받을 때마다 그때, "부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되십시오"이지, 하면서 믿음을 굳혀본다. 초삼자이지만 그동안 생각한 내가 전부가 아니라 놀라운 마음의 힘이 내 속에 있다는 말씀을 믿어보려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변화해 보려고 시도하는 중이다.

#### 부처님 마음내 마음

조그만 새싹을 볼 때는 나중에 커다란 꽃이나 나무로 피어난 모습이 좀처럼 상상되지 않는다.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도 믿기 어렵다. 그러나 엄청난 자연의 진리다. 생활 속에서 온갖 문제와 번뇌에 시달리는 자신을 볼 때, 그 안에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갖춘 부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잊을 때 참나가 드러난다"고 했다. 부처님 출가일이 다가온다. 우리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내 안의 부처님 마음을 찾기 위한 발심을 새롭게 해 보면 어떨까.

황수경(동국대 신학과 강사)



### 부처님 감사합니다

## 어머니의 '천수경' (상)

박성민 서울시 금천구

붉게 물들어 있는 노을에 잠시 취해 보았습니다. 지쳐버린 하루에는 어느덧 눈앞에 보이지 않고 무심한 하늘에는 낙조의 잔영으로 붉은 노을이 세상을 가득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뀌고 바람이 달라지는 시간 속에 살랑 살랑 나뭇잎을 건드리는 바람결처럼 마음 또한 가볍습니다.

간혹 바람결에 묻어온 아이들 냄새가 두 눈가에 축축이 묻어납니다. 간간히 작은 원을 그리며 날아다니던 새들도 물러오는 어둠의 긴 그림자를 피해 나뭇잎 사이로 몸을 숨깁니다. 화려한 노을 속에 지쳐가고 있는 하루를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가끔 수십 척 높이의 하얀 담장 너머로 세상을 가르며 들려오는 자동차 경음 소리가 쉬지도 않고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듯합니다. 타의로 조용히 가라앉은 제 주변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 새삼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내 허무한 삶에 수없이 원망도 하였습니. 원망이 쌓이고 쌓여 제 가슴 속에 썩어 들어갔지만 그 또한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점점 무디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이곳에 갈까 이렇게 후회하며 가슴에 하얀 번호를 달고 영어의 몸으로 있어야 하는지, 아직도 깊고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착의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지 고민 속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간이역이라도 보일 것도 같은데 작은 비늘 끝만큼의 빛도 없이 아직도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입니다.

탕 비어 있는 내 마음의 밑에서 하루 종일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부짖고 있는지 저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을 뒤로 하고 처음으로 푸른 수의를 입던 날, 마치 세상을 원망이라도 하는 듯 가슴이 무거웠던 저를 대신해 하늘에는 참 많은 비가 쉬지도 않고 뿌려 주었습니다. 제 답답한 마음속에 또 그 어둠처럼 터널 한 가운데에서도 하얗음이 비가 내렸습니다.

늦은 가을바라 하기에 너무도 많이 쏟아져 내리던 그 비는 늙으신 어머니의 허망한 눈물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을 가진 저를 알고 있다는 듯 내리는 빗방울에 저는 더욱 서글프

게 가슴으로 소리 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이 손을 담근다고 해서 그 강물이 멈추지 않듯이 어느덧 영어의 몸으로 생활한지 두 해가 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가슴 깊숙이 파묻혀 있는 내 안의 우울 속 부끄러운 얼굴을 한참을 비추어 봤습니다. 단 한 번 주어진 내 삶이란 고귀한 기회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얼굴을 그려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가진 것 같은 희망과 내일이 저에게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암담한 오늘날 있는 줄 알고 고통을 겪어 온 것을 포기하며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때 늙으신 어머니로부터 열심히 읽으라는 당부 함께 <천수경>을 받았습니.

살을 포기하고 있었기에 저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천수경>을 구석진 곳으로 내팽겨 버렸습니다. 내 허망한 삶과 세상을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원망만 하였습니.

하루하루 포기하고 원망 속에 지쳐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힘겨운 바람을 등에 업고 어깨가 축 처진 가려진 모습으로 찾아 온 어머니를 이 세상 가장 부끄러운 이곳에서 만나야 했습니다.

투명한 아르카를 사 이에 두고 저는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갈기갈기 찢겨진 눈두렁처럼 깊이 파인 주름 속에서 세월이 지쳐 굽어굽이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전 말없이 보아야 했습니다.

이미 삶도 포기해 버리고 원망 속에 질망 속에 빠져 있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가 두 손에 꼭 쥐어주던 <천수경>마저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수많은 세월 한 많은 사연을 알고나 있는 듯 어머니와 제 사이에 놓인 오랜 투명아르카를 점점 뿌얇게 변화하고 있었습니.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 하는 그 허망한 눈물을 전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허망한 눈물과 그 눈물의 참 뜻을...

이파도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도 누워있지 않으며 오직 부처님의 힘으로 남은 삶을 지탱하고 있다며 소리 없이 울며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 또한 말없이 가슴으로 울어야 했습니다.

마음 속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구석에 내팽겨쳐 버린 <천수경>을 꺼내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그림: 문병성

#### 희망 잃고 원망으로 사는 나에게

#### 어머니는 '천수경' 쥐어 주셨지만...

이파도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도 누워있지 않으며 오직 부처님의 힘으로 남은 삶을 지탱하고 있다며 소리 없이 울며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 또한 말없이 가슴으로 울어야 했습니다. 마음 속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구석에 내팽겨쳐 버린 <천수경>을 꺼내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 행운의 판

**한국불교대 관음사 53선지식 초청법회**  
대구 한국불교대학 관음사에서 3월 21일 53선지식 초청 특별법문의 첫 번째 법문이 시작된다. 21일 오전 11시 옥불보전대법당에서 열리는 첫 번째 강의를 대한불가사수회 김용국 회장이 '재미있게사는 길'을 주제로 걸쭉한 입담과 그의 신행담을 털어놓는다. 저녁 8시에는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이 '참선과 행복'을 주제로 올바른 수행법과 불자로 사는 행복에 대한 법문을 불자들에게 설해준다. (053)474-8228

**조계사 가족스원성취 100일 기도**  
서울 조계사가 3월 19일-6월 26일 가족스

원성취 100일 기도를 봉행한다. (02)732-2183

**화엄사 웰빙 템플스테이**  
구례 화엄사가 3월 31일-4월 1일 성전7강반에 회사에게 펼쳐진 벚꽃길을 걷고 성전강 래프팅도 체험하는 이색 템플스테이를 준비한다. 사찰 안에서의 불교문화 체험에서 벗어나 봄맞이 가족나들이의 성격까지 포함한 화엄사 템플스테이에 동참해 보자. (061)782-7600

**조계종복지재단 자원봉사기본교육**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3월 20일-4월 5일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여섯 번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마음을 여는 대화법, 불교와 자원봉사, 자원봉사의 역할 및 자세, 사회복지기관의 이해, 자기건강관리, 기본 간호학 등으로 구성된다. (02)723-5101

**봉선사 경전반 수강생 모집**  
남양주 봉선사가 3월 31일까지 경전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4월 5일 개강하는 경전반은 불교대학 졸업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문 경전을 강독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설법전에서 열린다. 수강료는 3만원. (031)527-1951

**바로보인 전등록 바로보인 선문염송**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풀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대웅전 원공 기념 파격할인!!  
3월말까지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45%할인된 5만원에 드립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프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초판 매진 감사합니다. 보타 완성도를 높인 『補正版 발매개시』**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목지음  
출판: 미르아오

**대처의 법과 법을 소승의 법과 법을 대승의 법**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새로운 밀레니엄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중에서-

**이 책의 특징...**

- 유식학의 현대적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 의식개혁·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유식佛思想 釋明
- 자기발전·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편의성 제고

**구입문의**

- 전국불교서점·유명서점
- 총 판: (02)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055) 353-6142
- 010-2356-6142

정선 동강의 자랑 長壽청국장

**長壽**

청국장분말  
청국장완  
탄저/간장

강원도 정선 동강 백운산 앞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 생산한 **개두 100%**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콩으로 만든 長壽 청국장 분말과 완**

▶ 청국장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조상 대대로 각 문헌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 개발하여 논문이나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좋아야 좋은 청국장 분말이나 완을 만들 수 있기에 長壽 청국장 분말이나 완은 정선 동강 앞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조상님들의 재래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적정온도로 삶아 황토방에서 숙성, 네시틴 균이 죽지 않는 40℃에서 장시간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 長壽 청국장 분말입니다.

▶ 분말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수를 이용하여 완을 만들어 희석이 잘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을 고집하며, 최고의 품질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정진하는 동강백운산도종이 되었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15012-51-078352 백승화

**주문 및 문의전화**

(033)378-4312  
010-4634-4311

청국장 분말 1kg 35,000원  
청국장 완 500g 25,000원  
탄 1kg 12,000원